

<2022년 3월 30일 수요일 새벽, 주 말씀>

1.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해 주시겠느냐. 그러므로 걱정 근심하지 말고, 오직 시대 말씀을 믿고 행해라.
2. 어려움이 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, 무섭다고 눈을 감다가 당하게 된다. 하나님과 성령님을 생각하며, 밝히 보아라. 그가 우리를 위해 행하심이라.
3. 하나님과 성령님이 홀로 행하시지 않도록, 생각이 깨어서 그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 사랑하며 함께 행하여라.
4. 하나님과 성령님은 뜻이 있는 곳에 여건을 만들어 놓으시고, 누구든지 그 길로 갈 수밖에 없게 해 놓으신다. 그러므로 늘 사랑과 감사의 기도다.